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설정과 그 의미

위성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장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소식이 연일 우리의 주변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한 바 있는 조류인플루엔자(특히 H5N1)는 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을 벗어나 중국·몽골·러시아·카자흐스탄을 넘어 루마니아, 터키 등 유럽까지 발생하였다. 동남아에서만 이미 6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사람간의 전파를 통한 세계적 대유행(pandemic) 가능성을 우려하며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경고와 함께 대응전략 등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발생국의 경우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PAI라고 칭함) 발생 이후, 통제를 위한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발생이 지속되므로서 풍토병(endemic)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5년 5월 WHO, FAO, 및 OIE가 공동으로 발표한 HPAI 통제를 위한 국제적 대응전략에 분석된 바에 의하면, 동남아 발생국에서의 HPAI 근절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이유는 그 나라의 방역정책이나 그 대응책과 관련된 문제 이외에도 많은 원인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HPAI를 통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약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국가 및 농장의 시스템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는 하지만, 가장 큰 약점으로서 방역활동이나 그를 위한 수의 조직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여러 감염 국가에서의 수의조직은 HPAI의 급속한 전파, 심각성 및 범위를 다루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HPAI 통제 및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생물학적 안전조치를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살처분 조치 등을 통해 감염 지역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고, 미감염지역에서의 전염원을 배제하는 등 기본적인 생물학적 조치를 실행할 능력조차도 없다는 것이 이 지역에 HPAI가 존속하고 전파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이다. 세 번째로는 역학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감염과 전파 등 역학과 관련한 많은 유용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의 질병통제 프로그램과 연결된 역학적 연구들을 구체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보는 HPAI의 통제 및 예방을 위한 적절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역학의 현대적 방법론과 도구가 없어 역학적 전문지식이 미약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점이 동남아의 많은 발생국가에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예찰과 역학적 프로그램에 연결된 조화된 질병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분명하게 인식되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영향의 평가를 기초로 한 질병통제 계획의 실패라는 점이다. 국가적인 경제사회적 경제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HPAI 통제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평가는 무역문제, 수의 및 축산발전 프로그램, 사회경제적 영향 및 경제적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15개월 동안, 중국, 베트남 및 태국에서 HPAI의 발생과 그 전파 등에 대해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집오리가 HPAI (H5N1) 바이러스의 중요한 보균 (reservoir) 숙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역학적 연구 결과들은 야생 조류가 가금류에게 H5N1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가금류와 야생조류 간의 접촉을 막기 위한 생물학적 안전조치를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외에도 방역을 위한 각 관련분야 간의 긴밀한 연결 (기술분야와 기획분야 간, 농림-보건-경제부처 간 등)을 통한 협조가 부족한 것도 전염병 통제를 위한 장기적 기획을 방해한다. HPAI의 인수공통적, 초국가적 성격을 고려하면, 질병 통제를 위한 여러 부처간 및 국가적 (지방, 지역, 공동사회 및 농가 수준), 지역적 및 국제적 수준의 그룹 간에 적절한 연결고리와 정책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12월 최초로 HPAI가 발생하였다. 그 당시 닭고기·오리고기 등 축산물 먹거리에 대한 불신과 사람의 감염가능성에 대한 언론의 보도 등으로 사회적인 불안감이 야기되고 국가적 공황 (panic) 상태에 돌입하였던 경험이 있다. 당시 직접적인 피해액만도 1,500억원을 넘어섰으니 간접적인 피해액을 산정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과 주변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비록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14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예보(관심단계)”를 발령하게 되었다. 정부에서 가축질병에 대한 예보를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부는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여 방역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방역대책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HPAI 전파경로 및 요인에 대해서 각 요인별로 세부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다. 농림부는 지난 9월말에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수행할 여러 가지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공·항만의 검역관과 검역탐지견을 증원 배치하고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축산물 휴대 반입금지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였다. 국내방역의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에 대한 위험도 분석 결과 과거 HPAI 발생지역 및 닭·오리 밀집사육지역 등 집중관리 대상지역 (21개소)을 선정하여 예찰을 강화하고 사육오리와 철새·털새에 대한 분변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감염되더라도 임상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바이러스 전파원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높은 오리과 철새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질병 유입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HPAI는 다른 질병과는 달리 국경검역과 국내방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내의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철새에 의한 유입 및 전파가능성 때문이다. 현재 이동 중인 철새의 경우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것과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경로가 다소 다르고 북쪽 지방에서의 서식지도 다르다. 북방철새나 남방철새 보다는 오히려 나그네 철새로 인한 전파위험성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설사 철새에 의한 유입가능성이 단지 1%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입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노력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



을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철새에 의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지만 지금은 축산농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축산은 좁은 국토에서 많은 수의 가축을 밀집 사육하고 있어 좁은 면적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반면, 질병이 발생할 경우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를 받

을 수 있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HP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의 규모나 사회적인 충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하고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까지 증상의 발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야생조류에서 HPAI 바이러스(H5N1)가 발견되고, 중국과 이란 등지에서 대량 폐사한 철새의 죽음이 H5N1에 의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어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올겨울 HPAI 방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리와 야생조류의 예찰과 정밀검사의 강화일 것이다. 폐사된 야생조류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여 정밀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의사, 축산농가 및 축산업 관련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HPAI 의심축의 발견이나 폐사된 야생조류의 신속한 신고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사회·경제적인 파장을 최소화하는 가장 중요한 초동 방역임을 강조하면서 축산관련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대수**